

20세기 서구 여성 헤어스타일 변화의 주기성 연구

박길순·이주연*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광주보건전문대 피부관리과

A Study on the Cycle of Western Hair Style's Change in 20th Century

Kil-Soon Park and Ju-Yeon Lee*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 Associate Professor of Chungnam University
Dept. of Skin Care, Instructor of Kwangju Health College*

目 次

Abstract	1. 머리 길이
I. 연구 의의 및 목적	2. 머리 폭
II. 순환론	3. 머리 높임
III. 헤어 스타일 측정 요인별 변화 현상	V. 헤어 스타일 측정 요인간의 관계
1. 머리 길이	VI. 헤어 스타일과 스커트 스타일과의 관계
2. 머리 폭	VII. 결 론
3. 머리 높임	참고문헌
IV. 헤어 스타일 변화의 주기성	

Abstract

Even it's not easy to find the cycle of the change without the qualification of the data, but we can try to figure out a cycle of change in fashion as Kroeber used content analysis.

As content analysis with quantitative data increases the objectivity, especially in the case of highly complex material like as appearance, multi-directional research metho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re combined in this study.

In this research, first the change in hair length(HL), hair width(HW), hair height(HH) was examined to find out possible cyclic aspects of change in each elements and the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the hair style was probed and the cyclic aspects between hair style elements and skirt style elements were compared.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Time series analysis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hair style of 20th century showed that the hair style's elements changed independently and indicated the cyclic aspects in hair style as Kroeber's fashion cycle. To consider of this result, the hair style changed in a cyclic pattern, its pattern were different from skirt style's. And as hair style's change was affected by the social change, the hair style's change appeared during wars and disappeared during a social stabilization; this result supports social change theory.

I. 연구 의의 및 목적

문화는 한 시대의 가치관, 이념, 예술 양식, 경제적, 정치적 상황 등이 반영되어 나타나며 한 사회의 문화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문화 요소들은 시간을 통하여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하며 계속해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에 따라 그 변화의 속도와 성격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오랜 시간동안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에는 지속적인 주기가 있으며 또한 순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화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화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Kroeber(1919)가 복식을 통하여 양식을 측정하고 수량화하여 복식 변화의 규칙성을 발견한 이래 여러 복식 학자들은 순환론에 기인하여 복식사의 내용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의복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의복 이외의 장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주기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Vogue지를 이용하여 1920년에서 1994년까지의 서구 여성 헤어 스타일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며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헤어 스타일의 측정 요인을 머리 길이, 머리 폭, 머리 높임으로 분류하여 각 측정 요인별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조사한다.
2. 그 변화 양상의 규칙적인 주기성에 대해 조사한다.
3. 각 측정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4. 헤어 스타일의 변화(머리 길이, 머리 폭, 머리 높임)와 의복 스타일의 변화(스커트 길이, 허리선 위치)간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II. 순 환 론

한 사회의 문화는 가족, 친족, 혼인, 법, 예술, 신앙, 가치관, 세계관 등 비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구, 기술 등의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하여 수 많은 부분들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통합된 전체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 또는 문화체계는 변동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회의 문화도 불변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다만 개

인이 살고 있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고, 그가 문화에서 전개되고 있는 변동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변동의 측면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50년, 100년, 20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문화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차이들 중에 비록 드물게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도 있을 것이지만, 그 대부분은 오랜 시일에 걸쳐서 작은 부분들에 일어난 변동들이 축적되어 일어난 문화변동이다. 그러나 변동의 속도와 성격은 모든 문화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즉, 변동을 문명적 수준에서 분석한 순환론, 전체 사회라는 수준에서 본 발전론, 사회문화의 구조에 초점을 둔 구조기능주의, 근대화의 퍼스널러티에 중심을 둔 사회심리학적 이론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복식 양식의 변화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주기성이 있음을 밝힌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순환론을 적용하여 헤어 스타일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순환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는 문명을 탄생, 성장, 정체, 해체라는 지속적인 순환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문명은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부터 발생하며, 그 도전들이란 열악한 환경조건, 새로운 땅, 시련, 압력, 불리한 조건 등이라고 하였고 극단적으로 격렬한 도전에 의해서는 적절한 응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렇게 탄생한 문명은 창조적 소수, 즉 엘리트에 의해서 성장되나 또한 문명은 창조적 엘리트가 더 이상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다수 대중이 더 이상 엘리트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고 엘리트를 모방하지 않아서 사회적 통합이 해체될 때 붕괴된다. 그리고 해체의 기간에 이르면 성장기의 문명을 특징지었던 행위방식, 감정방식, 생활방식들이 대안적 대체물로 환원된다고 하였다.¹⁾

피티림 소로킨(Pitirim A. Sorokin)은 순환적 사상을 바탕으로 역사는 세 개의 사회문화적 초체계를 -감각적, 관념적, 이상적- 간의 진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변동에 관한 세 가지 가능한 설명들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변동은 사회문화적 체계에 외재하는 요인들의 결과일 수 있다. 둘째, 변동은 체계의 내적 요인들 때문에 발생한다. 셋째, 변동의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 양자를 다 탐색한다. 그는 그 중에서 특정 조건들과 한계 내에서, 외적 원리에 의해 지지되는 내재적 변동의 원리를 채택하였다. 즉, 현존하고 있는 모든 체계는 변동하고 있으며 외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내적 요인들이 변동의 주요한 추진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²⁾

이븐 할둔(Ibn Khaldun)은 역사 과정 속에서 인과적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 단순한 연대기적 기록이 아닌 변동들의 유형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는 전제 하에 '인간의 사회적 조직은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였고 사회 변동은 그 변동을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변수들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현상은 법칙적 유형을 따른다. 이러한 유형들은 물리적 세계에서 작용하는 것들 만큼 엄밀하지는 않지만, 인식하고 기술할 수 있는 규칙성을 충분히 보여주며 그 규칙성은 사회적 수준에서 작용한다. 사회적 과정에 관한 법칙들은 많은 자료를 모으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관찰함으로써 발견되어야 하고 문서로 된 과거의 기록들과 현재의 관찰 양자 모두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다.

1) 정근식 역, 사회 변동의 이론과 전망, pp. 60-66.

2) 전개서, pp. 53-59.

또한 구조적으로 유사한 사회들에서는 유사한 사회적 법칙들이 작용하며 사회는 변동에 의해 특징지워지고 그 변동의 속도는 상당히 다양할 것이다.

III. 헤어 스타일 측정 요인별 변화 현상

1920년부터 1994년까지 매달 자료를 표집하였으며 자료는 일상복 차림의 젊은 여성의 사진이고 정면에 가깝고 직립에 가까운 사진, 모자나 머리 장식, 머리를 올리거나 묶은 것, 특수한 기법에 의한 머리 등은 배제하여 임의적으로 매 10년마다 100개 정도씩 표집하여 총 827개의 자료를 측정하였고 측정방법은 우선 얼굴 중앙의 이마 끝에서 턱 끝까지의 수직선상의 길이를 제어 얼굴 총길이(face length)로 하고 머리길이(hair length); 얼굴 중앙의 이마 끝에서 머리 끝까지의 가장 낮은 부분까지의 수직선상의 길이, 머리 폭(hair width); 머리 폭중 가장 넓은 수평선상의 길이, 머리 높이(hair height); 이마 끝부터 머리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의 수직선상 길이 등을 제어 각각 얼굴 총길이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1. 머리 길이 (HL)

머리 길이는 헤어 스타일의 측정 요인중에서 가장 변화의 폭이 크고 잦았으며 사회적 배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20년대는 여성의 역할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과 함께 머리 길이가 80%에서 59%까지 획기적으로 짧아졌으며 전 시기를 통하여 가장 짧았던 시기였다. 1930년대는 경제 공황과 함께 머리 길이가 68%에서 75%까지 길어졌고 1940년대에 140%까지 길어졌다.

뉴룩이 등장한 1947년에 머리 길이가 108%까지 짧아졌고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60년대의 반항적인 젊은이들의 의식은 긴 머리를 통하여 잘 나타났으며 이 시기의 머리 길이는 극단적으로 가장 길었으며 이것은 극단적으로 짧았던 스커트와는 대조적이었다.

1970년대에는 머리 길이가 다시 106%까지 짧아졌으나 이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 길이였으며 동시에 긴 머리와 짧은 머리가 유행하여 머리 길이가 다양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며 1970년대의 탈패션화 경향이 머리 길이에서도 일치된 것이었다.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변화가 계속되었고 그 변화의 폭은 95%에서 140%까지였다.

2. 머리 폭 (HW)

머리 폭 역시 머리 길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여 1920년대에는 머리 폭이 129%에서 96%로 줄어들었다가 1930년대에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1940년대에는 138%까지 확장되었다. 또한 1947년부터 머리 폭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머리 폭 감소 현상은 1950년대까지 계속되었으나 대체적으로 1950년대의 머리 폭은 110~140%수준으로 안정적이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머리 폭은 머리 길이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과장되기 시작하여 최고 155%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전반에는 머리 폭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는 계속해서 머리 폭이 증가와 감소를 번갈아 가며 변화하

여 머리 폭의 변화 역시 탈 패션화의 경향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머리 높임 (HH)

1920년대의 머리 높임은 머리 길이, 머리 폭과 마찬가지로 점차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1930년대로 가면서 머리 길이와 머리 폭과 함께 머리 높임도 증가되기 시작하였으며 1950년에서 1955년 사이에 일시적인 감소 현상을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1950년대 말부터 소위 “벌꿀통 모양 머리”라고 불릴 정도로 머리 높임이 높아졌으며 최고 45%까지 높아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머리 높임의 증가 역시 1960년대의 머리 길이, 머리 폭의 증가 현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초반에 잠시 낮아졌던 머리 높임은 1970년대 후반부터 다시 높아져 1980년대에는 54%까지 높아졌으나 이 시대의 머리 높임은 1960년대의 형태와는 달리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었고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의 과학의 발달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준 것과 일치하는 것이었다고 사료된다. 1990년대에 이르러 강한 복고풍 경향이 사회 전역에서 나타났고 이러한 영향은 역시 머리 높임에서도 나타나 70년대 중반과 비슷한 머리 높임이 나타났다.

IV. 헤어 스타일 변화의 주기성

1. 머리 길이 (HL)

1920년대에 짧아졌던 머리 길이는 1930년대부터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여 1940년대에 계속해서 길어지다가 40년대 후반부터 다시 짧아지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에 길어지다가 1970년대에 짧아졌고 80년대 이후에는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다시 짧아지는 경향을 보여 머리 길이는 길어지다가 짧아지고 다시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머리 길어짐이 빨리 사라지면 짧아짐 역시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 길이의 변화 속도는 점차로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20년대의 머리 길이가 그 이후에 다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머리 길이가 길어졌다가 짧아지더라도 길어지기 이전의 길이보다는 길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머리 길이는 전체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 길이의 변화에서 상승과 하강의 기간은 점차로 단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패션의 변화 속도가 점차로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Young

<표 1> 머리 길이의 상승과 하강

상승 기간	하강 기간
1928~1936년(8년)	1920~1928년(8년)
1941~1946년(5년)	1946~1951년(5년)
1963~1969년(6년)	1969~1974년(5년)
1987~1991년(4년)	1984~1987년(3년)
	1991~1994년(3년)

(1933)이 주장한 1930~40년의 스커트 길이의 변화보다 머리 길이의 변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머리 길이의 변화는 전 시기를 통하여 자주 있었으며 1951년~1963년(12년), 1974~1984년(10년)인 22년의 안정적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변화를 하여 머리 길이의 변화는 다른 패션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20년부터 1994년에 이르기까지 평균 머리 길이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상승하

<표 2> 머리 폭의 상승과 하강

상승 기간	하강 기간
1929~1935년(6년)	1921~1929년(8년)
1963~1967년(4년)	1967~1972년(5년)
1972~1983년(11년)	1983~1993년(10년)

감소하다가 1930년대에는 다시 증가하였고 1960년대에 다시 증가하던 머리 폭은 1960년대말부터 1970년대초에 감소하였고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에 증가하던 머리 폭은 1980년대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머리 폭에서도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1920년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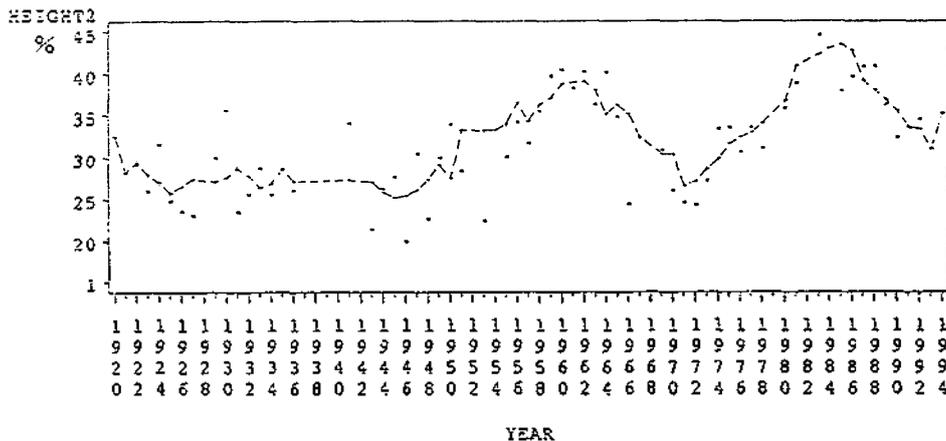
1930년대의 변화 속도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변화 속도가 짧아졌으나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변화의 속도는 더욱 느려진 것으로 보아 머리 폭의 변화는 기술의 발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미적, 실용적인 이유에서 머리 폭의 변화에는 머리 길이에 비하여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 폭은 1921~1929년(8년)까지 머리 폭이 점차로 감소하였으나 1929~1935년(6년간)은 다시 증가하였고 1963~1967년(4년간)은 머리 폭이 증가하다가 1967~1972년(5년간)까지는 다시 감소하였다. 즉, 머리 폭의 진동 역시 한번 상승하면 다시 하강한다는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그 진동의 속도는 빨라졌다. 그러나 1972~1983년(11년)까지는 머리 폭이 증가하다가 1983~1993년(10년)사이에 다시 머리 폭이 감소한 것은 상승 후에는 하강이 온다는 법칙은 적용되나 그 변화의 속도는 더욱 느려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이후의 급속한 과학 기술의 발달이 미용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 커팅 기법의 발달과 헤어 제품의 발달로 헤어 스타일링의 방법이 발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머리 폭은 다른 사회적 요인보다도 기술의 발달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3. 머리 높임 (HH)

<표 3>을 보면 머리 높임은 1920년에서 1950년 사이에는 머리 높임이 거의 없었으며 변화도

HEIGHT \$ YEAR



<그림 3> 머리 높임의 변화

<표 3> 머리 높임의 상승과 하강

상승 기간	하강 기간
1950~1961년(11년)	1961~1971년(10년)
1971~1985년(14년)	1985~1994년(8년)

거의 없었다. 1950년 이후에는 1950~1961년(11년간)까지 머리 높임이 점차로 높아졌으며 1961~1971년(10년간)은 점차로 낮아졌다. 그러나 1971~1985년(14년간)은 머리 높임이 다시 높아졌으나 그 시기가 더욱 길어진 것으로 보아 머리 높임 역시 머리 폭과 마찬가지로

기술 발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진동의 폭은 상승과 하강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1985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한 머리 높임은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헤어 스타일의 구성 요인 변화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머리 길이보다는 머리 폭이, 머리 폭보다는 머리 높임이 더욱 변화의 폭이 적고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머리 길이에 비하여 머리 폭이나 머리 높임이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가 어려우며, 극단적으로 변화하였을 경우 실용적이지 못하고 미관상 좋은 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V. 헤어 스타일 측정 요인간의 관계

헤어 스타일의 측정 요인인 머리 길이(HL), 머리 폭(HW), 머리 높임(HH)간에 서로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 관계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와 같이 헤어 스타일의 측정 요인인 각 항목들(머리 길이, 머리 폭, 머리 높임)은 서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머리 길이와 머리 폭은 정적인 관계로 머리 길이가 길어지면 머리 폭도 따라서 넓어지고 머리 길이가 짧아지면 머리 폭도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머리 폭과 머리 높임 사이에도 정적인 관계가 있어 머리 폭이 넓어질 때에는 머리 높임도 높아지고 머리 폭이 좁아지면 머리 높임도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머리 길이와 머리 높임은 부적인 관계가 있어 머리 길이가 길어지면 머리 높임이 낮아지고 머리 길이가 짧아지면 머리 높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Richards의 20년대 스킨트 램라인과 힙라인, 허리 라인 위치의 변동 사이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이것은 또한 스킨트 길이와 허리선 위치는 부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는 Weeden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표 4> 헤어스타일 요인간의 상관관계

	머리길이 (HL)	머리폭 (HW)	머리높임 (HH)
머리길이 (HL)		0.42162***	-0.17689***
머리폭 (HW)			0.31899***
머리높임 (HH)			

*** p<.001에서 유의함.

이와 같이 헤어 스타일의 측정 요인간에 나타난 유의한 상관 관계로 유추하여 볼 때, 세로 길이가 길어질 때는 가로 길이도 길어져 가로 세로 길이가 비슷한 정사각형에 가까워 지려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타일이 변화하더라도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되며 의상 디자인의 원칙인 프로포션, 균형, 미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Belleau(198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VI. 헤어 스타일과 스커트 스타일과의 관계

헤어 스타일과 스커트 스타일의 변화간에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Weeden(1977)의 연구 결과와 함께 비교해 보았다. Weeden의 스커트 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1976년에 그쳤으나 1970년대말부터는 탈패션화 경향으로 특정한 한가지 스타일만이 유행하지 않고 여러가지 스타일이 동시에 유행하여 한가지 스타일이 한 시대를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려우므로 1970년대까지의 패션 경향만을 살펴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헤어 스타일의 측정 요인인 머리 길이, 머리 폭, 머리 높임과 스커트 스타일의 구성 요인인 스커트 길이, 허리선 위치, 스커트 폭등간의 관계를 피어슨 상관 관계(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알아 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에서와 같이 헤어 스타일과 스커트 스타일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머리 길이(HL)와 스커트 길이간에는 부적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른 측정 요인들간에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헤어 스타일 변화와 스커트 스타일의 변화는 각각 서로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헤어 스타일과 스커트 스타일의 상관관계

	Skirt length	Waist length	Skirt Width
머리길이 (HL)	-0.50534**	0.30270	-0.39365
머 리 폭 (HW)	-0.33526	-0.22977	0.20766
머리높임 (HH)	-0.03375	0.09531	0.09531

* p<.05에서 유의함.

** p<.01에서 유의함.

VII. 결 론

이상과 같이 Vogue지를 이용하여 20세기 서구 여성의 헤어 스타일의 변화를 고찰하여 본 결과 헤어 스타일은 각 측정 요인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변화하였으며 또한 각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헤어 스타일의 변화는 순환론의 특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하나의 헤어 스타일은 세계대전과 같은 도전에 의한 융전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사회가 안정되어감에 따라 그 스타일은 점차로 소멸되어 또 다른 헤어 스타일에 의하여 대체되는 등 헤어 스타일의 변화는 탄생, 성장, 정체, 해체라는 지속적인 순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븐 할둔(Ibn Khaldun)이 주장한 바와 같이 역사의 변동 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동 과정속에서 인과적 요인들을 확인한 결과, 그가 발표한 변동의 원칙과 비슷한 변화의 원칙이 헤어 스타일에도 있음을 알게 되었

다. 즉, 헤어 스타일의 변화는 사회 변동과 같은 법칙적 유형을 따르는데, 그 법칙들은 사회적 수준에서 작용하고, 구조적으로 유사한 사회들에서는 유사한 사회적 법칙이 작용하고, 변화의 속도는 다양하다는 점에서 사회 변동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복식의 일부인 헤어 스타일은 하나의 문화 요인으로서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그 변화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고 변화의 속도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변화 체계에 존재하는 내적, 외적 요인들을 함께 고찰해 봄으로써 헤어 스타일은 내적으로는 순환적으로 변화하며 또한 외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헤어 스타일의 변화 과정을 살펴 보고 그 주기를 밝혀본 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가능한 헤어 스타일의 변화 방향, 더 나아가서는 패션 변화의 방향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복식사의 연구를 양적, 질적 내용 분석을 이용하여 각각의 연구 방법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헤어 스타일이라는 신체 장식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패션 경향 예측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1. 김민자의 4인, “한국 복식 변천과 사회 변천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17, # 2, p. 315-327, 1993.
2. 김동현, “1920년대와 1960년대 구미 여자 복식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3. 김희숙, “20세기 서구 여성 헤어 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3.
4. 남윤숙, “Skirt 길이의 변화에 관한 연구”, 1955년~1986년을 중심으로, 복식 제11호, p. 31-43.
5. 도주연, “Hairstyle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비교 고찰, Computer Graphic Simulation을 이용하여”, 부산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1.
6. 마릴린 혼 & 루이스 구렐, “의복 제2의 피부”, 까치.
7. 박길순, “한국 현대 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8. 박길순, 정현숙역, 엘리자베스 B 헐록, “복식의 심리학”, 경춘사.
9. 백영자, 유호순 공저, “서양 복식 문화사”, 경춘사.
10. 유송옥, “복식 의장학”, 수학사.
11. 유수경, “한국 여성 양장 변천사”, 일지사
12. 유연실, “의복 유행과 형태적 변화와 시차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1981.
13. 이대인 역, 데이비드 A 라우어, “조형의 원리”, 미진사.
14. 이선혜, “패션 머천다이징”, 수학사.
15. 이은영, “복식 의장학”, 교문사.
16. 이정남외, “복식의 역사”, 까치 문화사.
17. 장문호, “복식 미학”, 장학사.
18. 장지혜, “복장 원론”, 경춘사.

19. 정근식의, “사회 변동의 이론과 전망”, 한울 아카데미.
20. 정성지, “1, 2차 세계 대전 전후의 복식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4.
21. 정홍숙, “복식 문화사”, 교문사.
22. 조규화, “1920년대 갈손느의 출현과 그 복식”, 한국 의류학회지 제 8권, 제 3호, 1984.
23. 차하정, “서양사 총론”, 탐구당.
24. 한상복외, “문화 인류학 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5. 황의선, “근세 서양복장의 두식과 장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논문, 1985.
26. Amy de la Haye, *Fashion Source Book*; (London: Macdonald & Co Ltd), 1988.
27. Behling, Dorothy, Fashion Change and Demographics : A Model, *CTRJ*, vol. 4, #1, pp. 18-24, 1985~1986.
28. Belleau, Bonnie, D., Cyclical Fashion Movement: Women's Day Dress: 1860~1980. *CTRJ*, vol. 5, #2, pp. 15-20, 1987.
29. Bruno du Roselle, *La Mode*; (Paris: Imprimerie Nationale), 1980.
30. Carolyn, G. Bradley, *Western World Costume Practice*; (N.J: Hall Inc), 1954.
31. Creekmore, Anna, M., Body Proportion of Fashion Illustrations, 1840~1940, Compared with Greek Ideal of Female Beauty,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vol. 7, # 6, pp. 379-388, July, 1979.
32. Cutting, *The Vidal Sassoon Way*; (London: Heinemann Professional Publishing), 1984.
33. Elizabeth Ewing,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London: Batsford Book), 1992.
34. Gerald Battle-Welch Cantz, *Vidal Sassoon Bauhaus*; (Bonn: Werner Moller), 1992.
35. *Hats in Vogue*; (N.Y: abberille Press), 1981.
36.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London: Thames and Hudson.), 1986.
37. Kroeber, A. L., *The Nature of Culture* ; The Uni of Chicago.
38. Kroeber, A. L., Order in Changes of Fashion, *American Anthropologist*; vol. 21, July~Sept, 1919.
39. Michael, R. Solomon, *The Psychology of Fashion*; (Toronto: Lexington Books), 1986.
40. Paoletti, Jo, B., Content Analysis : It's Application to the Study of the History of Costume, *CTRJ*, vol. 1, pp. 14-17, 1982.
41. Lowe, Elizabeth, D. & Lowe, John, W., Cultural Pattern and Process : A Study of Stylistic Change in Women's Dress, *American Anthropologist*, pp. 521-544, 1982.
42. R. Turner Wilcox, *The Mode in Costume*; (N.Y), 1958.
43. Richard Corson, *Fashion in Hair*; (London: Peterowen), 1991.
44. Richards, Lynne, The Rise and Fall of It All: The Hemlines and Hiplines of the 1920s, *CTRJ*, vol. 2, pp. 42-48, 1983~1984.
45. Richardson, Jane & Kroeber, A. L., Three Century of Women's Dress Fashion : A Quantitative Analysis, *Fashion Marketing*; (London: George Allen & Unwind Ltd)

- p. 47-106, 1973.
46. Troxell Stone, *Fashion Merchandising*; (N.Y: McGraw-Hill Book Company), 1981.
 47. Valerie Steele, *Woman of Fashion*; (N.Y: Rizzoli), 1991.
 48. Vidal Sassoon, *Art Coiffure et Liberte*; (Paris: Preface de Mitterand), 1992.
 49. Weeden, Patricia, Study Patterned on Kroeber's Investigation of Style, *Dress*, vol. 3, pp. 9-19, 1977.
 50. Young, Agnes, Brook, *Recurring Cycles of Fashion. Fashion Marketing*, (London: George Allen & Unwind Ltd), p. 107-123, 1973.
 51. Elizabeth Lowe & John Lowe, Velocity of the Fashion Process in Women's Formal Evening Dress, 1789~1980, *CTRJ*, vol. 9, # 1, p. 50-58, 1990.